

祝 辭

(要 約)

金 俊 燁

(韓國共產黨研究協
議會 名譽會長)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祝辭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역사의 東亞研究所는 창설 이래 日就月將의 성장을 거듭하여 해마다 중요한 주제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중있는 연구소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둔 연구소는 국내외에서도 필적할 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東亞研究所의 創設紀念 祝賀演說로 인연을 맺은 이래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마음 깊이 빌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규모있는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본인이 축하연설을 맡은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수용이라는 이 주제는 지나간 시대를 극복·지양하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通時性을 인식하며 그것을 미래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수용이라는 동일주제라고 하여도 아세아 각국이 처한 역사적·공간적 상황에 따라 공산주의의 해석과 연구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학자들은 대부분 6·25를 거친 세대로 생명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 자신도 중국대륙에서 국민당계열의 유격대에 소속하여 항일투쟁과 반공투쟁의 일선에 나섰습니다만, 그 유격대는 陳毅가 지휘하는 再建新四軍의 공격을 받아 전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같

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연구는 이론적·학문적 작업 보다는 체험에 의한 저부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공산권 연구 환경의 개선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연구환경은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1966년 온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산주의연구 학술회의가 비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주최했던 이 회의는 정부측의 회의허락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비공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호기심에서 많이 참가했고 우리는 정부와의 약속에 의해, 아니 그보다는 차후 공산주의연구의 진전을 위해 무리를 무릅쓰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진행요원과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1970년에 열린 통일에 대한 최초의 국제학술회의도 총준비기간 4년중 허락을 받아내는데만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막상 허락을 받았지만 통일이야기만 꺼내도 연행되던 당시의 시대분위기에 참가를 꺼리는 학자들을 간신히 설득해서야 회의를 열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연구환경의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자료의 취급 및 보관, 공산권 여행의 제한 등 개선되어야 할 상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난관 속에서 추진되던 공산주의연구였지만 그때 참여하고 같이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연구소, 대학강단, 남북회의에서 훌륭한 일을 하였던 것을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東亞研究所에서 주최하는 이 학술회의는 그때와 비교하면 월등 훌륭한 환경과 심도있는 학문적 논의를 다루는 만큼 아무쪼록 이 회의를 기반으로 뛰어난 연구업적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李光麟, 李相禹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회의를 뒷받침해준 한국국제문화협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회의의 성공적 진행을 바라며 축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